U.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통권 13권 / 제2호

국제정보프로그램:

코디네이터	Jeremy F. Curtin
편집국장	Jonathan Margolis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George Clack
편집장	Richard W. Huckaby
실무편집인	Bruce Odessey
제작부장	Janine Perry
제작차장	Sylvia Scott
카피편집	Rosalie Targonski
사진편집	Maggie J. Sliker
그래픽디자인	Vincent Hughes
참조전문가	Anita N. Green
	Lynne Scheib
편집위원	Michael J. Friedman

미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e저널 USA」제호 아래 매월 온라인 저널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본 저널은 미국의 사회, 가치, 사상, 제도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달 영어로 당월호가 발간되고 난 후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본이 후속적으로 게재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호는 아랍어, 중국어 및 페르시아어로 번역 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저널은 통권과 호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본 저널에 실린 주장이나 의견들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본 저널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들의 내용이나 액세스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책임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본 저널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도표들은 저작권 제한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복제 또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저널 상에 표시된 해당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최신 호와 지난 호들을 비롯해 앞으로 발간 예정인 저널들의 목록을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america.gov/publications/ejournals.html) 본 저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국가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본지 편집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eJournal USA
IIP/PUBJ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 S.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메일: eJournalUSA@state.gov
한글번역: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타

이번 호를 내면서

자료출처: 미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흔히 미국을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부른다. 실제로, 아일랜드 이민 4대였던 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0년대에 '이민자들의 나라(A Nation of Immigrants)'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기도 했다. 하지만 1500년대에 유럽인들이 미 대륙에 정착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러한 표현은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역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민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석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프랑스 이민 출신 농부였던 헥터 세인트 존 드 크레브쾨르는 1781년 유명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미국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후대의 미국인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룬 대답은 '미국인의 정체성은 조상의 출신 지역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국인의 정체성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대의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같은 미국의 근본이념을 수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민을 환영해왔지만, 이번 호에서 헤이샤 다이너가 적시한 것처럼 새로운 이민 집단이 국내로 유입될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논쟁이 야기됐던 적도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 들어서도 이민 정책은 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현안으로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 이민자 문제는 2008년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호의 주제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어떻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이민 세대가 주류 사회에 어떻게 편입되었는지에 관해 주로 다루게 된다.

창의성, 역동성, 새로운 문물에 대한 개방성 등 미국의 국력은 이민자들의 다양성으로부터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도 그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편집부 일동

미 국무부 / 2008년 2월호 / 통권 13권 / 제 2호
http://www.america.gov/publications/ejournals.html

미국 이민자들의 주류 사회로의 동화

4 이민과 미국 역사
헤이샤 다이너 뉴욕대학 역사학 교수
4세기에 걸쳐 유입된 수천만 명의 이민이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했다.

10 미국의 아일랜드 이민 사회
케빈 케니 보스턴대학 역사학 교수
초창기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갖은 고초를 겪었다. 아일랜드 이민 1세대와 그 후손들은 난관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룩했다.

13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
스콧 E 페이지 미시건대학
복잡계 · 정치학 · 경제학 교수
이민들과 함께 유입되는 새로운 생각들이 미국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16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일반적인 귀화요건

17 개정된 외국인 귀화시험

18 미국의 정체성: 민족을 초월한 이념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 국제정보프로그램국 필진
미국인들은 인종이나 종교 혹은 민족 정체성이 아닌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을 기초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

21 다양성의 시장
필라델피아 명소에서의 점심 식사를 통해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23 모범적인 이민 학생
빅 민 응웬 퍼듀대학
창작 · 아시아-아메리카 문학 조교수

베트남 출신의 어느 여자 아이가 미국인이 되어가는-결코 녹록하지 않은-과정

25 다양성의 군대
리사 앨리 미 육군교육사령부 공보관

미 육군은 모든 구성원의 강점을 수용하여 단일한 문화 속으로 포용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 단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28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민 출신자들
세계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킨 이민자들의 이야기

30 현대 경제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
다이버시티잉크 필진

거대 이동통신사인 베리존은 다민족 고객 집단을 상대하기 위해 다민족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32 관련문헌 목록

33 인터넷 자료 목록

이민과 미국 역사

헤이샤 다이너

1892년~1924년 기간에 뉴욕 엘리스 아일랜드를 통해 약 1,600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땅을 밟았다.

지난 4세기에 걸쳐 유입된 이민자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형성했다. 이들은 새 삶과 생존을 위해 신세계를 선택했다. 이들의 피나는 노력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새로운 조국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헤이샤 다이너는 뉴욕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행을 택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건국의 기원과 신생 독립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서양 변방 국가에서 강대국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민은 미국의 건국을 가능하게 했다.

여느 개척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독립을 쟁취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미개발된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 해외 이민자의 유입에 의존했다. 캐나다, 남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도 그러한 역사적 이민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들 신대륙을 점령한 식민제국들은 식민지로부터 천연자원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인들 중 두 가지만을 갖추고 있었다. 즉 토지와 자본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작이나 벌목, 채광, 수렵 등에 요구되는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현지 노동력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아프리카 흑인 노예 매매를 부추겨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들 신대륙에 수백만 명의 흑인 이민을 유입시켰다.

이민은 미국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의 이민 역사는 시기적으로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로 이

자료출처: 표1. 전체 인구 출생 통계 및 출생지 현황(1850~2000년)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documentation/twps0081/twps0081.pdf)

민의 출신 지역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각각의 시기는 미국 사회와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러한 특징의 형성 과정에도 관여했다.

신대륙 개척민

미국 이민 1기는 17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가장 긴 기간에 걸쳐 지속됐다. 프랑스 팔츠의 독일어 사용 지역 주민(프랑스 신교도)과 네덜란드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이민자들이 이 시기에 미국에 들어왔다. 네덜란드와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역시 일부 있었지만, 이민 1기의 대부분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등 영국계가 주축을 이루었고 각기 다른 식민지(이후 주(州)로 확대)나 지역에서 집단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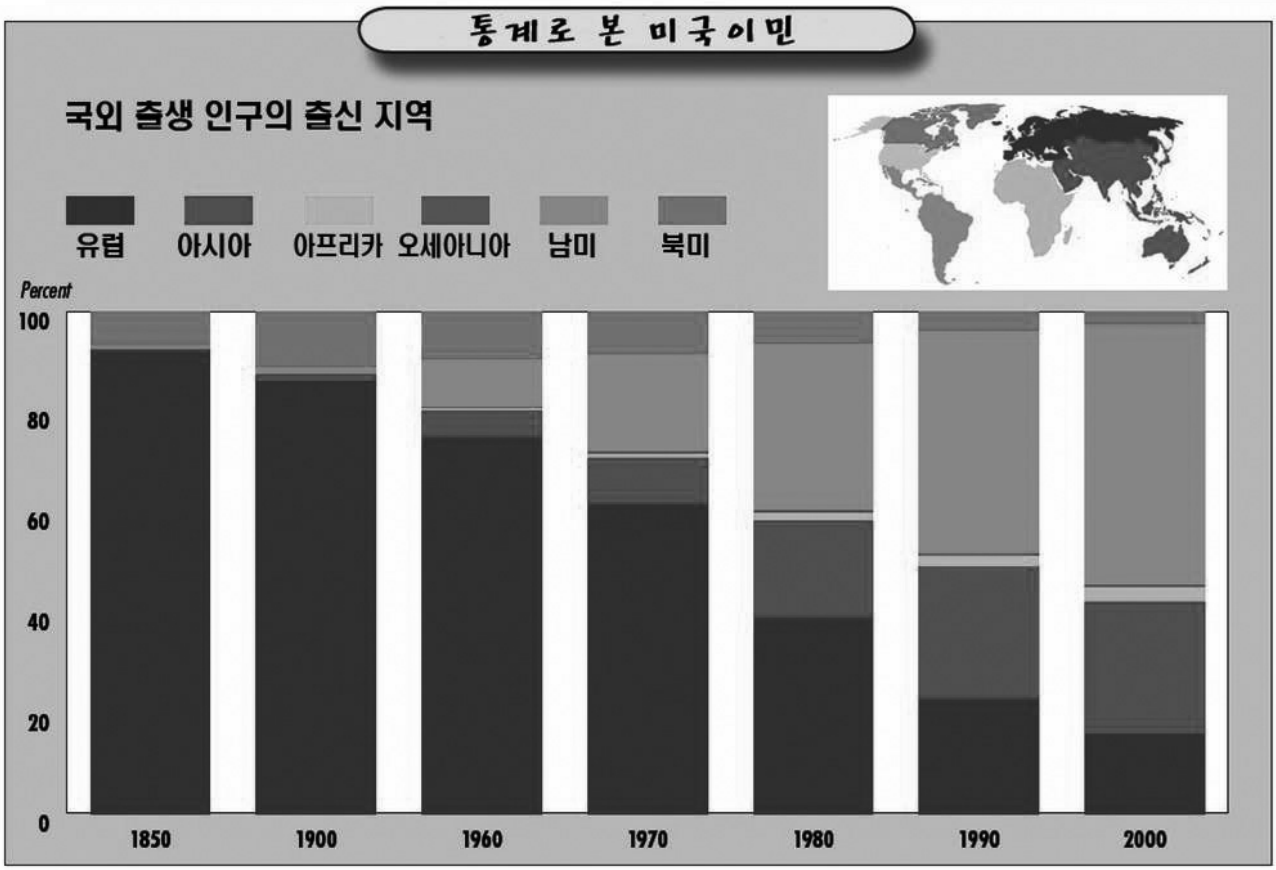
흔히 개척민으로 불리는 이 시기 이민자들은 당시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북서부 유럽의 빈곤층 주민들로서 싼 값에 농지를 불하받는다는 조건하에 미국에 건너와 주로 농업에 종사했다. 그 중에서도 이민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일단의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기간 계약제 노동자(indentured servant)'의 형태로 미국에 건너왔다. 이들은 고용주와 일정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신대륙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가혹한 노동을 감내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불하받아 자영농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대규모 이민

이 시기 이민자 수는 비교적 적었다. 하지만 1820년대에 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규모 이민의 유입이 시작된 것이다.

이 무렵부터 1880년대까지 1,500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을 찾았으며, 그 중 상당수가 중서부와 북동부에서 농업에 종사했고 나머지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보스턴, 볼티모어 등 대도시로 모여들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그러한 변화를 초래했다. 유럽의 경우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의 종전으로 제대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잉글랜드와 북유럽 그리고 중부유럽 내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던 산업화와 농업 통폐합 과정으로 인하여 각국 경제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 젊은 세대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다. 미국에서는 이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즉 1825년 이리 운하의 개통과 뉴욕항의 성장으로 중서부 지역 개척이 활발해졌으며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방직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료출처: 표2. 국외 출생 인구의 출신 지역(1850~1930년 및 1960~2000년)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documentation/twps0081/twps0081.pdf)

이민자들은 특정한 동네나 도시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락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 19세기 중반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로 각광받기 시작한 미국 중서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보헤미아와 1871년 이전에 독일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주한 이민들로 끈끈하게 뭉쳐진 매우 동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개신교가 득세하고 있던 미국 땅에 가톨릭 이민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아일랜드 주민이었던 이들 이민 집단의 유입으로 인해 가톨릭에 대한 두려움과 아일랜드계에 대한 혐오감에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토착주의가 발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토착주의는 남북전쟁(1861~1865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특히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했으며, 심지어는 반 이민과 반 가톨릭을 중심 강령을 내건 '노우 나씽즈(Know Nothings)' 정당도 출현했다. 또한, 이 시기에 소수의 중국인들이 미국 서부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토착 미국인들은 중국 이민의 유입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그 결과 특정 민족 집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상 유례 없는 법률인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1882년 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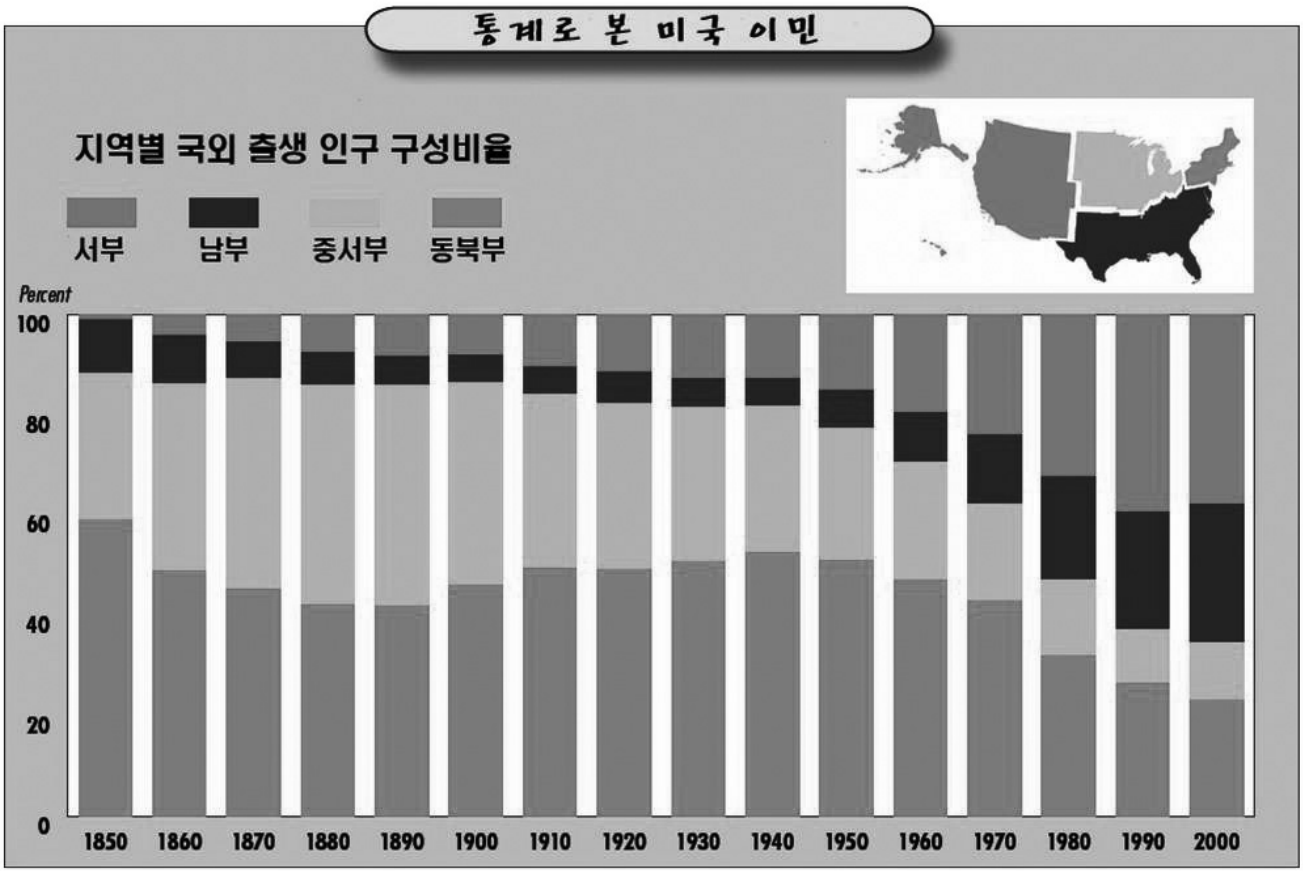
작은 물결이 거대한 홍수로

남북전쟁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민자의 출신 지역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항해 기술 역시 발전을 거듭했다. 기존의 이민자들이 돛단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증기선의 발명으로 대형 선박에 많은 승객을 태우고 미국으로 항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 이민자들은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겪고 있던 남부와 동부 유럽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이민 집단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압도적인 다수를 구성했다. 미국 이민 역사에서 3기에 해당하는 이 집단은 무려 2,500만 명의 유럽 이주민이 미국행 선박에 몸을 실었던 까닭에 이민의 홍수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였다.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슬라브 주민들이 이 시기 이민의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25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유대인들도 포함돼있었다.

각각의 집단은 이주민 성비, 이주의 영속성, 문맹률, 아동의 비율 등에서 각기 독특한 특징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이민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졌다. 즉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하여 산업 인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철강, 석탄, 자동차, 방직, 의류 산업의 출현을 가능케 했고 미국이 경제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들이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돼있었고 그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자료출처: 표15. 역사적 지역 및 세부지역에 따른 미국 내 국외 출생 인구(1850~2000년)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documentation/twps0081/twps0081.pdf)

외국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감까지 결합되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조직적인 반 외국인 정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890년대의 상당수 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부유층 토착 백인 계층을 중심으로 이민을 국가 안보와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 중 한 집단이 1893년 이민제한연대(Immigration Restriction League)를 결성했으며 다른 유사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의회를 상대로 외국인 이민을 강력하게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민의 법제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이민에 대한 제한은 점차 강화되었다. 하지만 1차 세계 대전(1914~1918년) 직후와 1920년 초반에 걸쳐 미 의회는 이민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21년(1924년에 최종안 확정)에 제정된 국적법에 의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국적에 따라 이민 쿼터를 할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이 법은 북유럽과 서유럽 이민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에 동유럽과 남부 유럽 이민자들을 큰 폭으로 제한하고 모든 아시아 이민자는 입국을 허용할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이 법을 통해 서방 국가들을 쿼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운데 1920년대는 미국 이민 역사의 4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멕시코와 카리브 지역(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아이티 포함) 그리고 중남미 국가의 이민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됐다. 1924년에 제정된 이민법이 적용된 이 시기는 1965년까지 지속됐다. 이 40년 동안 미국은 경우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난민의 입국을 허용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치하에 있던 유대인 난민, 전후 홀로코스트 생존자, 공산 정권을 탈출한 동유럽 난민, 1956년 봉기에 실패한 헝가리 난민, 1960년 쿠바 혁명 난민 등이 미국 국민들의 연민을 자극하여 미국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이민법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트-셀러 법

이러한 상황은 1965년 국내 민권 운동과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의 부산물인 하트-셀러 법의 통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이 법의 본래 취지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인종에 기초한 이민 쿼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1924년 법에 의해 극도로 제한된 쿼터를 할당받았던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같은 '전통적인'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확대하

이민자들이 새로운 이민제한쿼터가 시행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1922년 뉴욕행 선박에 몸을 싣고 있다.

아시아 이민이 허용되지 않던 1920년대 샌프란시스코 만에 위치한 앤절 아일랜드의 어느 수용소에서 중국인 이민자가 취조를 받고 있다.

는 것이 애초의 의도였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쿼터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나 직업기술을 근거로 마련된 특혜 등급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거나 미 노동부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직업을 보유한 이민자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70년을 기점으로 유럽 이민자들의 유입이 정점에 다다른 이후로는 한국, 중국,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이민 규모는 1900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미국은 다시 한번 이민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변모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미국 사회는 이민과 이민자의 역할에 대한 논쟁에 또 다시 휩싸여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이민 집단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꺼리고 있으며 본국과의 유대를 지나치게 고수하며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단절돼있다고 느끼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민 반대론자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교육, 사회복지, 의료보건 제도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민자)가 사회의 기본 골격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반면에, 이민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이민 집단이 국민적인-초창기 이민의 자손들을 포함하여-두려움과 의혹 그리고 우려를 야기했으며 매번 새로운 이민 집단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이질적인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었던 전례를 지적한다. 아울러 이민 지지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민자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까닭에 넓은 안목에서 미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에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17세기 식민지 시대에서 21세기에 이르는 미국 역사의 모든 시기를 통틀어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민자들은 미국의 핵심 가치관과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언어와 문화 그리

고 종교를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미국 문화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민 1세대와 그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민 사회를 건설하고 미국 시민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한데 뭉쳐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로 본 미국이민

국외 출생 인구의 출생지 분포(2000년)

합 계	**31,107,889**
멕시코	9,177,487
카리브 지역	2,953,066
남부 유럽 및 동유럽	2,840,721
동아시아	2,739,510
중미	2,070,466
북유럽 및 서유럽	2,026,150
남부 아시아 및 중앙 아시아	1,745,201
캐나다 및 기타 북미	829,44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90,809
중동 및 코카서스 지역	658,603
북아프리카	190,491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군도	168,046

자료출처: 미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미국의 아일랜드 이민 사회

케빈 케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 내 반 아일랜드 및 반 가톨릭 정서에 종말을 고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아일랜드에서 사촌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

초창기 아일랜드 이민은 도시 빈민층을 구성하고 주변 이웃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등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모두 극복하고 번영을 이룩했다.

케빈 케니 교수는 보스턴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다.

1820년 이후로 5백만 명의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의 유입은 일부 토착주의 세력의 강한 반감을 샀다. 토착주의자들은 아일랜드 이민 사회의 사회적 행태나 그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교인 가톨릭 등을 이유로 적의를 드러냈다. 하지만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20세기 초반에 이르면서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데 성공했다.

합법적인 이민자는 헌법 준수 서약을 마친 경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백인 이민자의 경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토착 세력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이민 사회가 흑인이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인종 차별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은 시민권은 물론이고 입국조차도 제한을 받아야 했다. 자신들의 가톨릭 정체성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가는 동안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그들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갔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1840년대 전체 미국 이민의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 했으며, 1850년대에는 3분의 1을 구성했다. 당시 아일랜드 전체 인구가 850만 명에 채 못 미쳤고 국토 면적이 메인주 정도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그 무렵 1846년과 1855년 사이에 아일랜드를 덮친 감자 대기근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했고 150만 명이 미국으로 건너왔다. 상당수 아일랜드인들은 당시 대기근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로 망명 생활을 한 존 미첼은 "신이 우리에게 감자마름병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기

근을 일으킨 것은 영국이었다"고 적고 있다. 그 이후로 조국에서 추방된 망명자 신분이라는 인식이 아일랜드 이민 사회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초창기 고난사

대기근 시대의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미국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주민들이 뉴욕 맨하탄의 파이브 포인츠 지구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는데,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즈는 이곳을 가리켜 "무릎까지 진흙이 올라오는 거리와 골목 마다 오물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빈민굴로 묘사하고 있다. 디킨즈는 이 지역이 "강도와 살인이 만연한 끔찍스러운 집단 거주 주택들로 꽉 들어차 있으며 혐오스럽고 절망적이며 부패한 모든 것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표현했다.

빈곤층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채광과 통풍이 열악하고 주기적으로 하수도가 역류하는 지하실이나 다락방, 단칸방을 전전했다. 콜레라나 황열, 발진티푸스, 결핵, 폐렴 같은 질병의 발병률 역시 심각할 정도로 높았다. 많은 경우 알코올 중독과 결합된 정신 질환도 만연했다. 빈민구제시설이나 공립병원에 수용되는 비율 역시 인구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특히 경범죄 등으로 구속 혹은 수감되는 숫자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859년 뉴욕시의 통계를 예로 들면 전체 구속수감자의 55퍼센트가 아일랜드계 주민이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못했으며 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했고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경우에 대체 노동력으로 흔히 이용됐다. 토착 노동자들은 그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으며 단체행동을 통해 쟁취한 입지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이 아일랜드 이민 사회가 사회적 향상을 꾀하는 대신 영원한 노동계급으로 고착되어 근면한 노동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라는 19세기 미국의 중심 가치관을 위협하는 상황을 걱정했다.

통계로 본 미국 이민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외국 출생 인구

년도	전 체	외국 출생	%
2000	281,421,906	31,107,889	11.1
1970	203,210,158	9,619,302	4.7
1940	131,669,275	11,594,896	8.8
1910	91,972,266	13,515,886	14.7
1880	50,155,783	6,679,943	13.3
1850	23,191,876	2,244,602	9.7

자료출처: 미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토착주의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종교였다. 가톨릭을 신봉하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종국에 가서 미국과 로마 교황청 중 과연 어느 쪽에 충성을 바칠 것인가? 정치적 사안들에 있어서 교회의 가르침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인가? 교황과 추기경, 대주교, 주교의 교시를 받는 교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 가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자녀를 무료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 교회부설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개신교가 공립학교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자녀에게 부모가 옳다고 믿는 신앙을 심어줄 자유야말로 미국의 근본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토착주의자들은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가톨릭 신앙을 문제 삼아 끊임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1834년 폭도들이 매사츠세추주 찰스타운의 우르술라 수녀원을 방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836년에는 뉴욕의 토착주의자들이 『마리아 멍크의 놀라운 폭로(Awful Disclosures of Maria Monk)』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젊은 여성이었던 멍크는 이 책에서 자신이 수녀원에 있는 동안 문란한 성행위와 영아 살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공전의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1844년에는 공립학교에서 가톨릭 성경과 개신교 킹 제임스 성경 중 어느 쪽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두고 토착주의 폭도들이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가톨릭 교회 두 곳을 불태웠다.

일부 도시에서는 토착주의자들의 가톨릭에 대한 적대감이 폭력 사태로 비화되었다. 1877년 뉴욕에서 민병대가 반 아일랜드 시위대에게 발포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민 사회의 정체성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자신들의 애국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축하면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인 동시에 미

2007년 뉴욕에서 열린 성 패트릭 축일 가두행진은 아일랜드 이민 사회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국에 대규모로 건너온 첫 번째 가톨릭 교도들이었던 까닭에 미국의 가톨릭 교회를 단시간 내에 장악했다. 당시 세간에 유행했던 표현을 빌자면, 미국 내 교회는 '유일하고 신성하며 가톨릭적이고 교황을 숭상하며-아일랜드적'이었다. 가톨릭 신앙은 아일랜드 이민 사회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반 가톨릭 정서는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 문화의 저변을 이뤘다.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지방 정치권에서 입지를 강화해오고 있었다. 1920년대 들어 앨 스미스가 가톨릭 신자로는 최초로 대통령 후보에 오르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했다. 스미스는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반면, 자신의 아일랜드 이민 출신배경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케네디는 미국인들의 오래된 반 가톨릭 감정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케네디는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 "저는 가톨릭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며 단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교회 역시 제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었다. 그들은 미국 사회로의 동화가 고유한 민족적 전통을 희생하고 앵글로색슨 개신교 문화에 순응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미국이 이민 사회를 변화시킨 것만큼 이민 사회 역시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미국에 동화됨으로써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민족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문화적 다원주의의 토대를 닦았다.

현재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교육수준, 직업, 소득, 주택보급률 면에서 미국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상위 집단에 속해있다.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적 지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도시 지역에서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점차 전국의 교외나 중소도시들로 거주 영역을 넓혀왔다. 또한, 이들은 같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다른 민족 집단에서 시작하여 이후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 집단과의 결혼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민족적 정체성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약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이민 사회는 특히 정치와 문화 면에서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성공 신화에서 한 축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

스콧 E. 페이지

1940년 미국 시민 서약을 행하고 있는 아인슈타인.

미국 이민자 출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예는 아인슈타인 외에도 여럿이 있다. 미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세계 각국의 이민을 통해서 유입된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이었다.

필자인 스콧 E 페이지 교수는 미시건대학에서 복잡계, 정치학,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뉴멕시코 산타페연구소 외부 연구원인 동시에 『차이: 다양성의 힘이 어떻게 집단, 기업, 학교, 사회를 개선시키는가(The Difference: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Firms, Schools, and Societies)』의 저자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다양성에 기초한 국가를 건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화, 국적, 민족, 종교의 차이로 대변되는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 생산성에 일조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이 혁신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유를 일부나마 설명해준다.

이민자들은 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돼있다. 1995~2005년 기간에 미국 내 전체 벤처기업의 4분의 1 이상이 1명 이상의 이민자 출신 경영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현재 이들 벤처기업은 5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인텔이나 구글, 야후!, 썬, 이베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민 사회가 과학계에 미친 영향 역시 그와 비슷하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이민 출신이다. 여기에는 2007년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마리오 카페키와 올리버 스미시스도 포함되며, 두 사람은 모두 대학에 몸담고 있다.

이민자들이 보유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그들이 다양한 기술과 새로운 시각 그리고 사고방식을 유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다양한 역사, 이야기, 문화, 종교를 함께 들여온다. 또한, 이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인식의 다양성과 열망, 바로 이 두 요소가 이민이 국가에 중

2007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 중 한 명인 영국 태생 미국인 올리버 스미시스(가운데).

요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식의 다양성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증거들은 분명하다. 이러한 효과는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민 비율이 높은 대도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가장 높게 조사되며, 이는 사고의 다양성이 확산된 것에서 부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학계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팀을 이루어 수행한 연구일수록 단독 연구에 비해 학문적 영향력이 크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문화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 분야에서의 업적은 이민을 통해 유입된 새로운 생각들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서로 다른 관점

경제학과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양성이 작동하는 원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보다 많은 혁신과 과학적 발견 그리고 예술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답하자면, 바로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다채로운 시각과 사고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지칭하여 관점과 휴리스틱스(heuristics)라고 부른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미래의 물결은 유일무이한 도그마적 교조에 의한 세계 정복이 아닌 자유국가와 자유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에너지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관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재구성하여 쉬운 문제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과학적 발견, 새로운 예술 형식은 모두가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다. 발명가였던 필로 판즈워스는 쟁기질이 끝난 밭에서 힌트를 얻어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착안했으며, 그 결과 텔레비전이 출현할 수 있었다. 어떤 관점이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연스럽게 발견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유도할 수는 있다.

다양한 사고방식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얻어지는 중대한 발견들과 비교할 때, 소소하고 일상적인 개선을 가져온다. 어느 사회의 구성원이든 경험이나 교육 혹은 가정을 통해 습득한, 엄청난 양의 정규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비정규적인 어림짐작 수단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방식은 그 장소가 연구실이 됐건 혹은 공장 조립라인이 됐건 간에 그 사회 내에서 일관된 소규모 혁신을 가능케 만든다.

경제 성장과 과학 발전은 새로운 발견을 지속적인 혁신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먼저 누군가가 새로운 관점을 토대로 자전거나 개인용 컴퓨터 혹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 새로운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그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정교화한다.

이민은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이를 통해 벤처사업이나 과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다양성의 활용

이민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는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와 동질성을 지닌 사회 사이에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다양성은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복잡성을 통제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원리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팀 조직에 적용된다. 다양성에 기초한 집단이나 공동체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은 갈등을 초래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다.

둘째, 각기 다른 시각과 사고방식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관용이 요구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피부색을 초월하여 볼 줄 알아야 하며, 그 사람의 억양이 아니라 생각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누군가가 더 나은 해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시각이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목표나 이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서로 상이한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처럼 사회 구성원들간의 근본적인 성향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양성에 기초한 집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을 기대할 수 없다. 구성원들은 근본적인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이뤄야 한다. 다양한 시각이나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존재하는 반면, 근본적인 가치관에 혼란이 있는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탈리아 태생 미국 이민자 출신으로 2007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리오 카페키 박사(좌측)

적합한 환경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특징들을 감안할 때, 이민을 통해 형성되는 다양성의 효과는 적합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축적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에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성문화되지 않은 사회 규약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같은 법적 제도 역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최종적인 목표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고 국가의 근본 목표와 원리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국가 차원의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다.

일례로, 건전한 정치 체제하에서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재정 문제나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그 같은 논란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대립을 보이는 양방 모두는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대원칙에 있어서만큼은 거시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 Time & Life Pictures / Getty Images

대만 출신의 이민자 데이빗 호

이민 개방 정책이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거기에 덧붙여, 이민 개방 정책은 인식의 다양성 역시 확대시킨다. 인식의 다양성 속에 이민의 경제적, 과학적, 문화적 가치가 공존한다. 새로운 시각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진다. 대만 출신의 이민자였던 데이빗 호는 한 가지 항바이러스제만으로는 에이즈를 치료할 수 없지만 여러 약물을 칵테일처럼 동시에 투여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에이즈 신약이 개발되었고 데이빗 호는 '타임' 지로부터 1996년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의 발견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호의 이론을 확대 적용하여 이민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입된 구성원들은 국가적 당면 과제나 기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사고방식을 제공한다.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유로운 이민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시각과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유입될 경우 집단은 그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일반적인 귀화 요건

연령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

신청자의 미국 영주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상태여야 한다. 영주가 합법적으로 허용됐다는 것은 이민법에 따른 이민자로서 미국 영주권이 합법적으로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 및 실제 체류

신청서 제출 직전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킨 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영주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상태(전항 참조)
- 합법적 영주권자 자격으로 신청 직전까지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간 없이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 내 거주
- 직전 5년 중 최소 30개월 이상 미국에 실제로 체류
- 관할 주 혹은 지구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

도덕적 성품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귀화 신청서 접수 전 일정 기간(통상 5년, 미국 시민이 배우자인 경우 3년, 미군에서 복무한 경우 1년)에 걸쳐 자신이 바람직한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살인 혹은 중죄로 기소된 전과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귀화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직전 5년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자 역시 바람직한 도덕적 성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법의 준수

신청자는 미국 헌법의 원칙들을 준수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언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귀화 신청자는 일상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정부 및 역사에 관한 지식

탄자니아 출신 이민자인 주마 케네디가 캔자스시티의 어느 강의실에서 맞춤법을 연습하고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귀화 신청자는 기본적인 미국 역사와 정부의 원리 및 형태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충성 서약

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충성 서약을 행해야 한다. 서약을 통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맹세한다.

-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법률을 준수한다.
-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외국에서 받은 칭호를 포기한다.
- 국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미군에 입대하거나 미국 정부를 위해 봉사한다.

자료출처: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

개정된 외국인 귀화시험

2008년 10월 1일부로 미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귀화시험 문항을 제시하게 된다. 전체 100문항 중 1인당 10문항씩이 제시되며 통상 6문항 이상을 맞춰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아래 예시된 10개 문항들을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시험해보기 바란다.

문제

1. 미국의 수정헌법은 총 몇 조로 구성되는가?
2. 미국 의회는 어떻게 둘로 나뉘는가?
3. 대통령 선거는 몇 월에 열리는가?
4. 사법부의 기능은 무엇인가?
5. 현 하원의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6. 모든 남성의 병무국 등록 연령은 몇 살인가?
7. 페더럴리스트 페이퍼(Federalist Papers)』는 미국 헌법의 비준을 지지했다. 공동 저자들 중 한 명의 이름을 예로 든다면?
8. 수전 B 앤써니는 어떤 사람인가?
9. 미국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하나 예로 드시오.
10. 미국 국기에 50개의 별이 그려진 이유는?

정답

1. 27조
2. 상원과 하원
3. 11월
4. 법률의 심의, 법률의 해설, 분쟁의 해결, 위헌 여부 판결
5. 낸시 펠로시
6. 18세 혹은 18~26세
7.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퍼블리어스(필명)
8. 여권 운동가, 시민권 운동가
9. 체로키, 나바호, 수, 치페와, 촉토, 푸에블로, 아파치, 이로쿼이, 크릭, 블랙피트, 세미놀, 샤이엔, 아라와크, 모히간, 휴런, 오네이다, 라코타, 크로우, 티턴, 호피, 이누이트 중 하나
10. 별 하나가 주 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료출처: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

2007년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열린 선서식에 참가한 사진 속의 시민들처럼 선서를 행하기에 앞서 신청자는 소정의 시험 문항들에 답해야 한다.

미국의 정체성: 민족을 초월한 이념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

2007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시민 선서식에 참석한 이민자들의 면면을 통해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출신 국가나 민족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세기 건국 이래 미국 국민은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이 아닌 공통된 가치와 자유에 대한 확신을 근간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해왔다.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은 미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 소속 사학자 겸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빌리 조엘

2000년 현재 뉴욕 시 거주 인구의 35.9퍼센트가 외국에서 출생했다.

-미 인구센서스국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채 6년이 지나지 않은 1782년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에 건너오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정보』를 펴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건국의 시조'로 추앙하고 있는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 프랭클린은 여러 면에서 볼 때 가장 전형적인 미국인이었다. 조지 워싱턴은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근엄했고 토마스 제퍼슨은 책만 파고드는 학자였으며 존 애덤스는 까칠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미국이 후대의 사학자 월터 맥두걸이 명명한 것처럼 '허슬러의 나라(a nation of hustlers)'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은 실용적인 발명가이자 다재다능한 사업가인 동시에 쉴 새 없는 시민운동가였던 프랭클린이었다. 바로 그 땅에서 프랭클린은 미래의 이민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 사람들은 낯선 이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묻지 않고 '그 사람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만약 유용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환영을 받는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동을 조심한다면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프랭클린의 그러한 생각은 그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50년경 프랭클린이 살고 있던 펜실베이니아주는 독일 이민자의 수가 영국계 주민의 수를 압도하고 있었다. 독일 이민자들은 근면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집단으로 인정을 받았다.

숙련된 농부들이었던 독일 이민자들은 농지를 개간하고 경제 성

1959년도에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자유의 여신상 앞에 모인 이라크,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이민자들

장에 일조했다. 1790년 의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귀화 규정에는 민족 혹은 종교나 언어 구사 능력, 재산 보유 요건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년 거주 조건과 올바른 성품 그리고 헌법 준수 서약만을 귀화 조건으로 명시했다. 미국의 정체성은, 프랭클린이 이해했던 것처럼, 인종이나 종교 혹은 민족보다는 행동과 태도에 기초하고 있는 까닭에 미국인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과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문화학자인 마크 패처가 적시한 것처럼, 미국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이 되겠다는 본인의 결정만이 요구"된다.

공동체로서의 미국의 정체성은 인종, 종교,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는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아울러 개인의 자유와, 그러한 자유를 존중하며 명확하게 규정되고 제한된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굳건한 의지를 표방한다.

용광로 혹은 샐러드 그릇?

국민들은 다원주의와 동화 작용 사이의 창조적 갈등이라는 시각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비유는 희곡작가인 이스라엘 쟁윌의 1908년 연극 「용광로(The Melting Pot)」를 통해 유명해진 표현으로 극중에서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읊는다:

미국은 신이 만든 도가니, 유럽의 모든 인종들이 한데 녹아 들어 새롭게 태어나는 거대한 용광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다툼이나 원한은 하잘것없는 것이니! 독일인과 프랑스인, 아일랜드인과 영국인, 유대인과 러시아인이 모두 같은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리니! 신께서 미국을 만드시는구나.

쟁윌의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1782년에 프랑스 이민자로 미국 사회를 치밀하게 관찰했던 헥터 세인트 존 드 크레브쾨르는 미국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이 한데 섞여 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집단, 미국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은 유럽인이 아니며 유럽인의 후손도 아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다민족의 피가 기묘하게 섞여있다. 조부는 영국인, 조모는 네덜란드인, 며느리는 프랑스인, 네 명의 손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아내를 맞은 가족을 예로 들 수도 있다. 이들은 … 과거의 편견과 관습을 뒤로 한 … 미국인이다.

하지만 용광로 이론에 반대한 다른 의견도 항상 공존해왔다. 즉 각각의 이민 사회가 고유한 특징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상가였던 랜돌프 본은 1918년 '범국가적 미국' 이론을 제시했다. 본은 초창기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미국 용광로에 동화될 목적으로 미국에 건너온 것이 아니며 …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를 찾아 … 신대륙에서 부를 쌓을 목적으로 미국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은 이후 이민자들이 "무색 무미의" 동질적인 미국 문화에 녹아 들었다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위해 각기 고유한 기여를 했다고 해석했다.

용광로 이론과 범국가 이론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그 균형점을 달리해왔으며, 어느 한 이론도 압도적인 자리를 장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인종과 신념 그리고 피부색을 초월한 자화상을 내적으로 완성시켰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을 예로 들어보자. 영화 속의 소대원 중에 아이오와주 농촌 청년, 브루클린 출신 유대인, 시카고 공장 출신 폴란드 이민, 애팔래치아 벌목공 등 20세기 중반 미국 남성 인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은 할리우드의 공식이 되었다. 등장인물들은 영화 초반부에서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빚지만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는 같은 미국인으로서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흑인 병사들이 별도의 부대에 배속되었던 사실을 비롯하여 현실은 영화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화들은 미국인들이 믿고 있던-혹은 바라고 있던-미국의 정체성을 그리고 있다.

개인주의와 관용

만약 미국의 정체성에 각계각층의 국민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정체성은 국민들이 스스로를 계발하고 재계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 역시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태생적 요인'을 앞세우는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정부가

통계로 본 미국이민

2006년도 미국 시민 및 비 시민 현황(추정)

전체 인구	299,398,485
출생 시민	261,850,696
귀화 시민	15,767,731
비 시민	21,780,058

자료출처: 미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귀족 칭호를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거만한' 혹은 그보다도 못한 행위로 질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그 대신에 '자수성가한' 인물, 그 중에서도 특히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성공을 이룬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브리태니커로부터 당대에 사회적으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가로 평가받는 19세기 말 미국의 소설가 호레이셔 앨저는 구두닦이 같은 거리의 빈민층 소년들이 야망과 재능 그리고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는 내용의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미국인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미국인들은 저마다 성공의 정의를 다르게 내린다. 성공은 경제적인 부를 의미할 수도 있다-제2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애플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장을 포기하고 부모님 차고를 빌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성공은 스포츠 스타나 음악가 혹은 예술가가 되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제약이 무가치하다고 믿는 까닭에 미국의 정체성은 피부색이나 혈통 혹은 종교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

미국인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을 신봉하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남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추구하며 개인의 폭 넓은 자유를 주장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관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자유를 향유한다. 이를 위해 관건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대의 민주주의 정부 형태이다. 정부의 모든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모든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찍도록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여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요소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확고한 보장 장치의 수립이다. 미국 헌법이 비준된 직후, 국민들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권리장전을 요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미국인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단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희끗희끗한 가발을 쓴 미국 건국의 시조부터 다문화가정 출신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국인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조건하에-자유에 기초한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물은 혼란스럽고 흥미로우며 영감을 불어넣는다. 캄보디아의 어느 농촌에서 태어난 캄보디아 최고의 힙합 가수는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살고 있다(그는 'praCh'라는 예명을 사용한다). 미국의 국민시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월트 휘트먼이 지금의 미국 사회를 봤다면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휘트먼은 자신의 시에서 미국을 표현하면서 "나는 광대하다, 나는 많은 것을 포용한다"고 묘사한 바 있다. ■

다양성의 시장

사진 데이빗 스나이더

과거에 레딩철도회사의 차량기지였던 센터시티 필라델피아 내 레딩역 시장에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가정해보자. 이곳에서 고를 수 있는 메뉴에는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흑인 소울 요리, 펜실베이니아 더치(실제로는 '도이치(독일)'가 정확한 표기), 중국, 유대, 중동, 태국, 그리스, 프랑스, 일본 요리가 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온갖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다

매주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레딩역 시장에 위치한 80개 점포에서 다채로운 음식을 맛본다.

사비나 아마드와 타야바 카노움이 신선한 난(빵의 일종)을 비롯한 갖가지 남아시아 요리를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데이빗 딘이 스시를 내놓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신의 왓슨 팍스가 자신의 매장에서 아프리카 토속 장신구와 의류, 조각품을 판매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더치 출신 종업원이 물건값을 받고 있다.

레딩역 시장은 미국의 다양성을 한 지붕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모범적인 이민 학생

빅 민 응웬

필자의 가족은 필자가 생후 8개월 되던 1975년 4월 29일 사이공을 탈출했다. 이들 가족은 필리핀, 괌, 아칸소주 소재 포트 채피의 난민 수용소를 거쳐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 정착했다. 다음에 소개된 글은 필자의 저서 '부처의 만찬을 훔치다(Stealing Buddha's Dinner)'와 에세이 '모범적인 이민 학생(The Good Immigrant Student)'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현재 응웬은 인디아나주 퍼듀 대학에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창작과 아시아-아메리카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응웬은 자신의 회고록인 '부처의 만찬을 훔치다(Stealing Buddha's Dinner)' (Viking Penguin 출판사 · 2007년)를 출간한 바 있다.

사이공 난민 아동 출신의 빅 민 응웬은 행정모범 도시로 선정되어 `올 아메리칸 시티' 로 명명된 그랜드 래피즈에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우리 가족은 단돈 5달러와 옷가지가 든 배낭 하나를 들고 그랜드 래피즈에 도착했다. 우리 가족의 후원자였던 하이덴거 씨는 임대주택과 포장 쌀, 계란 국수, 콩 통조림 같은 약간의 식료품을 마련해주었고 작아져서 자신의 딸들이 못 입게 된 드레스를 우리 자매에게 물려주었다. 하이덴거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들 중 한 곳인 노스아메리칸페더 사에서 아버지가 충진 작업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 금발의 하이덴거 씨는 큼지막한 스포츠 코트를 즐겨 입었다. 나와 언니는 공손하게 보이기 위해 하이덴거 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도록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하이덴거 씨가 우리 집을 방문할라치면 할머니는 우리 자매에게 착한 아이가 되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안녕, 꼬마 아가씨들' 하고 부르곤 했다.

그 때가 1975년 7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날씨가 춥게만 느껴졌다. 베트남을 떠나온 우리는 항상 추위를 느꼈고 추 쿠옹 삼촌은 아무 생각 없이 구세군에서 2달러짜리 재킷을 한 벌 샀다가 할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볼드윈 가에 있던 그 회색 집에서 아버지, 노이 할머니, 삼촌 셋, 언니와 나 이렇게 일곱 명이 같이 살았다. 2층은 삼촌들이 썼고 아래층 방 하나에서 노이 할머니와 언니 그리고 내가 같이 생활했다. 아버지는 밤이면 어떻게 잠을 청해야 할지 몰랐다. 집안 이곳 저곳을 돌아 다니면서 현관 자물쇠를 두 번씩 확인하거나 바깥에서 누가 집안을 들여다보지는 않는지 테이프로 덧댄 창문 밖을 몰래 내다보곤 했다.

***

나는 '다양성'이나 '다문화적 인식'이 미시건주 서부까지 전파되기 전인 1980년대에 사춘기를 맞았다. '에스닉'이 유행처럼 번지기 전이었고, 도시마다 태국 음식점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기 전이었다. 나는 그랜드 래피즈를 생각할 때마다 '올 아메리칸 시티'라는 문구가 펄럭이는 깃발 조형물 안에 새겨져 있는 도시 표지판을 떠올리곤 한다. 이 거대한 입간판은 1980년대 내내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내려다보면서 S자로 휘어진 6차선 도로를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을 상대로 예의 그 구호를 자랑하곤 했다. 아직 어린 아이였던 나는 '올 아메리칸'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약속인가 위협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

내가 세 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로사라는 여성과 재혼했다. 새엄마는 나와 언니가 2중 언어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새엄마는 우리가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보다는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영어가 우리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해서 베트남적인 것을 모두 쓸어 버릴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녀의 생각은 옳았다. 언니와 내가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우리는 미국화되고 말았다.

나는 집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학교나 교우 집단을 비롯한 다른 모든 장소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던 이민가정의 아이들을 여럿 알고 있었다.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런 이중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었다. 나는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남의 눈에 띄지

1980년에 찍은 사진 속에서 빅이 사촌 데이빗을 안고 언니 안(좌측)과 의붓 언니 크리스틴 사이에 앉아있다.

않으면서 보내려고 노력했다.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불가능했던 까닭에 나는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했다. 이러한 태도를 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수동적인 아이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한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오는 버스에서 사라진 적이 있다. 나는 보통 세 번째 정거장에서 내리곤 했는데 그날은 버스 기사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 앞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버스는 시내를 향해 계속해서 갈 길을 갔고 나는 다른 아이들이 사는 곳을 모두 구경할 수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깔끔하게 정돈된 동네에 살았고 다른 아이들은 창문을 널빤지로 댄 집들이 늘어선 거리에 살았다. 버스가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내내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아이 하나는 자기 카세트테이프로 흥겨운 동요 한 곡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듣고 있었다. '두키를 왼쪽에서 돌려요, 두키를 왼쪽에서 돌려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동생은 버스에서 맨 마지막에 내렸다. 그제서야 버스 기사는 거울을 통해 내가 남아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내게 앉은 자리로 걸어와서는 "왜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니?"라고 물었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모른다고. 기사는 한숨을 쉬고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나에 관해 조금씩 잊어버리는 방법을 깨우쳤다. 나는 내 피부색과 내 몸에 대해 잠시나마 망각하는 상태가 주는 철저한 무관심의 달콤함을 깨달았으며, 수업에 늦어서 모두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봐도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강도와는 상관없이 자의식의 상실이 주는 쾌감을 익히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내가 교실에서 손을 들거나 아는 척 하지 않는 모범적인 이민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단순히 수업 내용을 암기할 뿐이었고 진도에 맞추기 위해 수업을 따라가는 식이었다.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주는 공포감을 결코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모범적인 학생이 되는 것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 사이에서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활보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이민 아동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나는 그들의(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주저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 친언니는 나처럼 내성적이지 않았다. 언니는 침묵이 아닌 반항을 택했다. 나는 언니와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 내가 언니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돈이나 사탕을 받았고, 언니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학교까지 차를 얻어 타곤 했다. 초등학교 시절 금발의 같은 반 친구가 선생님에게 "쟤 옆에는 못 앉겠어요. 엄마가 피부색이 갈색인 아이 옆에는 앉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말하더라는 인도 친구의 경험도 나는 알고 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민을 온 또 다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외국인'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반 아이들에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오늘날의 아이들이 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 비교하여 집체적 문화에 대한 훨씬 풍부한 이해의 혜택을 입고 있으며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인식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반대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며 어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라져버리기를 원할 것이라는 걱정 역시 지울 수 없다. 나는 때때로 잡지 사진의 흐릿한 배경이나 인솔 교사의 뒤를 따라 길을 건너는 한 무리의 아이들 속에서 그런 아이들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호흡조차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위축되어 보이는 아이들. 조그맣고, 수줍음 많고, 과묵하고-아주 모범적인, 모범적인 아이들, 이민자, 외국인-이 아이들의 눈은 자신들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애써 믿어보려 한다. 아마도 나 역시 같은 길을 건너고, 또 다른 길을 건너면서 가끔씩 고개를 돌려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펭귄그룹 계열사인 바이킹 출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부처의 만찬을 훔치다' (빅 민 응웬 지음)의 일부를 재쇄. 저자의 허가를 얻어 '모범적인 이민 학생' (빅 민 응웬 지음)의 일부를 재쇄. ■

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의 군대

리사 앨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포트 잭슨 신병훈련소에서 다문화권 훈련병들이 미 육군 병영 문화를 습득하고 있다.

미 육군은 소속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다양한 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족들의 강점과 경험을 수용하여 군대 문화 안에서 한데 통합시킴으로써 강력한 군을 양성하고 있다.

리사 앨리는 버지니아주 포트 먼로에 위치한 미 육군교육사령부 공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미 육군 신병훈련소 교관이 되어 입소 첫날 훈련장에 집합한 훈련병들의 얼굴을 훑어볼 기회가 생긴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미 육군의 정의에 따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태평양 군도 출신, 인디언, 혹은 '기타' 인종으로 분류된 다양한 집단을 마주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 100명 중 85명은 남자, 15명은 여자로 구성된다. 85명의 남자 훈련병들 중 60명은 백인, 10명은 흑인, 10명은 히스패닉, 4명은 태평양 군도 출신, 1명은 인디언으로 나뉜다. 15명의 여자 훈련병들 중 8명은 백인, 4명은 흑인, 2명은 히스패닉, 1명은 태평양 군도 출신으로 이뤄진다.

미국 내 여러 인종 집단과 남녀가 섞여 있는 이러한 병력 구성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합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 육군은 현재 세계 최강의 군대로서 다양성에 기초한 조직의 전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 육군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간에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인가?

미 육군의 성공은 훈련교관, 교관, 기회균등 상담관 등 하사관(NCO) 계급 교관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교관으로 근무하는 하사관들은 성공의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성공의 요인

첫째 요인은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군대 안의 다양한 문화와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기회균등 프로그램이다. 하와이 원주민 출신인 미첼 폰세카 중사는 "아직 미국 사회는 인종과 성 차별 장벽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며 군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폰세카 중위는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기회균등 상담관으로

포트 잭슨의 '군인화' 과정에는 팀워크 훈련도 포함된다.

근무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녀는 "하지만 국가 조직으로서의 군대는 평등과 공정성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장병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요인은 훈련교관들이 신병을 양성하는 신병훈련소에서의 소위 '군인화' 과정이다. 훈련교관은 훈련병들에게 육군의 7대 덕목인 충성, 의무, 존중, 희생, 명예, 정직, 용기를 가르친다. 이 덕목들은 육군 조직 전체와 동료 전우들을 위해 병사 개개인의 머릿속에 각인된다. 다양성은 존중 덕목과 군인복무규정을 통해 특별히 강조되고 있으며, 장병들은 남이 자신을 존중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신도 남을 존중할 것임을 서약한다.

버지니아주 포트 먼로에 위치한 미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기회균등 수석상담관을 맡고 있는 토니 매클루어 이등상사는 "(신병들을) '군인화'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라고 말한다. 태국인과 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매클루어 이등상사는 훈련교관, 공수부대교관, 주 아프리카 외교관, 소대 일등상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는 "훈련병들이 동료들과 생활하면서 좋든 싫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하는 훈련소 환경이 국적, 민족, 성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훈련소 퇴소식장에서 이전과 달라진 장병들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녀가 새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반응을 듣고 나면 군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속을 위한 공통점

하사관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병사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군인이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다.

폰세카 중사는 군대 문화를 가리켜 가치관, 신념, 관습, 전통을 공유하는 사회체계라고 말한다.

폰세카 중사는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으로 구성된 집단과 접하게 되는 경우 서로의 경험이나 관점을 공유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물보다 서로의 차이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력한 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각기 공헌할 수 있는 고유한 분야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폰세카 중사는 모든 장병의 다양성과 강점 그리고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자신이 입대할 무렵만 하더라도 세계를 여행하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군에서 달리 기대하는 게 없었다고 회상한다. 다양한 민족적 혹은 인종적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의 만남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들과 전혀 공통점이 없었던 그녀에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다.

폰세카 중사는 "군대에서 함께 경험한 공통점을 토대로 다른 동료들과 유대를 형성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군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 헌신 같은 덕목들을 공유하며 함께 훈련하고 지휘하며 전투에 임하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개선의 여지

하사관들은 다양성에 관한 한 군대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입을 모은다.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요새에 위치한 육군 제229정보대대의 훈련교관인 맷 루안 중사는 "군이 개선할 분야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루안 중사는 1992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1997년에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소수 인종은 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육군정보조직, 그 중에서도 특히 지휘선상에는 소수 인종의 비율이 극히 낮다"고 말한다. 반면에, 일부 다른 군 조직의 경우에는 소수 인종 출신 지휘권자의 수가 백인을 압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육군 신병훈련소가 몰려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포트 잭슨의 경우 "소수 인종 출신 지휘권자, 그 중에서도 특히 흑인의 비율이 백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폰세카 중위는 군이 인종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능동적인 태도보다는 피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우리는 군인도 사람이며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다"면서 "강력한 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 조직과 병사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군 최고 지휘자 역시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을 모델로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쿠르드족을 비롯한 여러 부

족들로 구성된 이라크 정규군을 창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조지 케이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저력이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케이시 참모총장은 다양한 국적의 미군 장병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이라크 군이 이라크 내에서 분파를 초월한 유일한 조직으로서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었다"면서 "조직의 다양성이 주는 저력을 확인하려면 굳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

통계로 보는 미국이민

국외 출생 인구의 언어 및 소득 현황

	국외 출생: 2000년 이후 입국	국외 출생: 1990~1999년 입국	국외 출생: 1990년 이전 입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영어	10.3%	11.4%	21.45
영어 이외의 언어	89.7%	88.6%	78.6%
영어 구사가 '매우 유창'하지 않은 비율	64.5%	55.2%	43.7%
2006년도 가구 중간 소득(물가인상률 조정)	$35,807	$42,649	$49,289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2006년도 중간 소득(물가인상률 조정)

전체 인구	$24,287
국외 출생 인구	$21,563

자료출처: 미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민 출신자들

미국과 이민 사회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민자들 중에는 세계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공헌을 한 이들도 있다. 그 중 몇 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앤드류 그로브

안드라스 그로프는 나치 점령과 1956년 소련 침공을 피해 고국인 헝가리를 떠나 1957년에 미국으로 건너왔고 자신의 이름을 앤드류 그로브로 개명했다. 그로브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며, 나중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업인 인텔의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그로브는 "나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신은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다"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이민자라는 이유로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그와 달랐다"고 회상한다.

아이잭 래리언

아이잭 래리언이 이란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장난감이나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갖던 추억보다 부친이 운영하던 포목점에서 '끊임없는 중노동'에 시달리던 기억으로 얼룩져있다. 1971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 래리언은 공대를 나와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를 개발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현재 래리언은 캘리포니아주 밴 나이즈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장난감 회사 MGA 엔터테인먼트 사의 회장 겸 CEO로 재직하고 있으며 유력 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비노드 코슬라

벤처투자가인 비노드 코슬라는 "실리콘밸리에 오는 것은 내 오랜 꿈이었다"고 말한다. 전기공학 학위를 갖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코슬라는 카네기멜론대학과 스탠포드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코슬라는 스탠포드대학 동기들과 공동으로 네트워크 컴퓨터와 IT를 전문으로 하는, 오늘날 포춘 500대 기업 중 하나인,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설립했다.

코슬라는 벤처투자가로도 변신하여 유망한 첨단 벤처기업들을 지원했다. 현재 코슬라는 농업폐기물을 원료로 바이오공학을 이용하여 고효율의 청정에너지인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자선기금을 후원하고 있다. 그는 "난 결코 일한 적이 없다"면서 "그저 게임에 뛰어들어 게임을 즐겼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세르게이 브린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세르게이 브린은 여섯 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브린은 국립과학재단 연구장학생 출신으로 스탠포드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다. (스탠포드대학의 어느 상담교수는 그를 두고 "워낙 머리가 좋아서 가만 있어도 흘러 넘칠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브린은 대학에서 동기였던 래리 페이지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 검색 결과를 순위에 따라 제시하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브린과 페이지는 1998년 공동으로 구글을 설립했다. 구글은 2004년 주식공개를 실시했으며 당시 주가총액이 230억 달러를 상회했다.

리바이 스트로스

1829년 브라비아에서 태어난 뢰브 스트라우스는 18세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훗날 전세계인의 바지 뒤춤을 장식하게 될 유명한 이름으로 개명했다.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스트로스는 금광을 찾아 나선 인부들을 상대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튼튼하면서도 편안한 데님 소재의 작업복 바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제품 중 하나였다. 1873년 스트로스는 재단사 제이콥 데이비스와 공동으로 데님 바지 주머니를 구리 리벳으로 보강하는 방법에 대한-최초의 청바지에 대한-특허를 출원했다. 리바이스의 트레이드마크인 '말 두 마리' 가죽 패치는 1886년에 등장했고 '레드 탭'은 1936년에 처음 출현했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수십억 벌의 리바이스 청바지가 팔려나갔다.

I. M. 페이

중국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오 밍 페이는 1935년 건축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대로 미국에 눌러 앉게 되었다. 뉴욕 JFK 공항과 워싱턴 국립예술갤러리 동측 건물 그리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루브르박물관 내 유리 피라미드 등 그가 설계한 건축물들은 건축 재료의 감각적 활용과 과감한 기하학 설계로 전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 경제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

다이버시티잉크 필진

고객서비스 담당자인 게르 마르티네즈(우측)가 2005년 LA에 위치한 어느 베리존 매장에서 고객인 호바니스 케시시안을 응대하고 있다.

거대 이동통신사인 베리존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고객 집단을 상대할 목적으로 직원들 역시 다민족으로 배치하고 있다. 전망이 밝은 분야지만 노력과 열의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이민 사회는 주류 사회의 폭이 넓어질 때 비로소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

다이버시티잉크는 기업 내 다양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력 월간지의 제목이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하에서 기업의 직원과 고객은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있으며 다채로운 언어를 사용한다. 경쟁력 확보를 원하는 기업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함의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확고한 고객기반과 직원기반을 구축한 미국 기업 중 하나가 2007년도 다이버시티잉크 선정 50대 다이버시티 기업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이동통신업계의 대표기업 베리존이다. 베리존은 영어가 제2국어인 고객 집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고한 다문화 기업조직과 경영진을 구축했다.

베리존은 고객에게 다양한 외국어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의 이 같은 전략은 과거에는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을 꼭 필요한 인원만 고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직원들 간에 유대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내 · 외부로 노력을 확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해 베리존은 인재 채용 및 유지 수단인 동시에 시장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 차원의 막강한 직원 리소스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직원 그룹은 대개의 경우 인종이나 민족 혹은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의 결연 관계를 기초로 조직된다. 회사는 이들 그룹에 따로 보수를 지급하고 근무시간 중에 회합을 갖도록 허용하는 한편 각 그룹마다 고위 임원이 한 명씩 배치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각 그룹은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지원하며 고객 대상 마케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마케팅 계획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매그다 이리자리 기업문화 · 다양성 · 준법감시 담당 부사장은 "회사의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개개인을 위한 여정"이

라면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포장된 인재만을 알아볼 수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회사의 고객들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회사 직원 구성상의 다양성은 흑인과 아시아계 그리고 히스패닉 직원의 고용 유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인종 집단의 고용 유지율은 백인 직원과 비교하여 같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가 2006년도에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관리자의 39퍼센트가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다양성 원칙에 초점을 맞춘 베리존은 스페인어, 한국어, 북경어, 광동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고객들에게는 스페인어, 한국어, 북경어, 광동어, 베트남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리존 플러스 매장 대상 다국어 고객영업 담당 부사장인 페드로 코레아는 "회사의 이런 노력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됐지만 당시만 해도 고객상담센터에 5~6명의 해당 언어 상담원들을 배치하는 정도"였다고 말한다.

현재 베리존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을 1,500명 이상 두고 있다. 코레아 부사장은 "이러한 상황은 시장과 국가 전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과거에는 생존 모드였지만 지금은 사업적인 판단 근거를 기초로 투자수익을 완전히 뽑고 있다"고 설명한다.

베리존은 자사의 다국어 서비스 부문이 연 9퍼센트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히스패닉은 전체 고객기반의 11.2퍼센트를 차지하며, 아시아계는 6.7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다.

베리존은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10~20퍼센트의 매출 신장을 경험했다. 코레아 부사장은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킴으로써 충성도를 높이고 성장을 유도하여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코레아 부사장은 62개 베리존 플러스 매장을 총괄하고 있다.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의 매출은 그렇지 않은 매장에 비해 최대 20퍼센트나 높았다. 이들 매장에 근무하는 전체 660명의 직원 중 절반 가량은 히스패닉, 아시아계, 흑인, 인디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또 다른 절반은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돼있다.

코레아 부사장은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고객들은 직접 대면하고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AT&T, Qwest, 스프린트넥스텔, 컴캐스트, 타임워너 등 거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베리존으로서는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코레아 부사장은 "사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설명한다.

이리자리 부사장은 "더 나은 실적을 위해 다양성을 중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문화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노력과 열의가 요구된다. 다른 기업 목표들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에 대해서도 목표와 의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문헌 목록
이민과 다양성에 관한 추가 문헌 목록

Alba, Richard D. *Remaking the American Mainstream: Assimilation and Contemporary Immigr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Barkan, Elliott R. And Still *They Come: Immigrants and American Society,* 1920 to the 1990s. Wheeling, IL: Harlan Davidson, 1996.

Brotherton, David C., and Philip Kretsedemas, eds. *Keeping Out the Other: A Critical Introduction to Immigration Enforcement Today.*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Brownstone, David M., and Irene M. Franck and Douglass Brownstone, eds. *Island of Hope, Island of Tears: The Story of Those Who Entered the New World through Ellis Island in Their Own Words. New York,* NY: Metro Books, 2002.

d'Appollonia, Ariane Chebel, and Simon Reich, eds. *Immigration, Integration, and Security: America and Europe in Comparative Perspective.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8.

Daniels, Roger. *Guarding the Golden Door: American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s since 1882.* New York, NY: Hill and Wang, 2004.

Daniels, Roger, and Otis Graham. *Debating American Immigration, 1882-Present.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1.

Dinnerstein, Leonard, Roger L. Nichols and David M. Reimers, eds. *Natives and Strangers: A Multicultural History of American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Foner, Nancy. *From Ellis Island to JFK: New York's Two Great Waves of Immigr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2.*

Graham, Otis L. *Unguarded Gates: A History of America's Immigration Crisi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Guskin, Jane and David L. *Wilson. The Politics of Immigration: Questions and Answers.* New York, NY: Monthly Review Press, 2007.

Handlin, Oscar. *The Uprooted: The Epic Story of the Great Migrations That Made the American People.*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Higham, John. *Strangers in the Land: Patterns of American Nativism, 1860-1925.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Immigrants: The New* Americans. Alexandria, VA: Time-Life Books, 1999.

Jacoby, Tamar, ed. *Reinventing the Melting Pot: The New Immigrants and What It Means to Be American.* New York, NY: Basic Books, 2004.

Michaels, Walter B. *Our America: Nativism, Modernism and Plur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5.

Renshon, Stanley A. *The 50% American: Im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an Age of Terror.*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5.

Swain, Carol M., ed. *Debating Immigra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Tanner, Helen Hornbeck. *The Settling of North America: Atlas of the Great Migrations from the Ice Age to the Present.* New York, NY: MacMillan, 1995.

인터넷 자료 목록

이민과 다양성에 관한
추천 웹사이트 목록

흑인 이주 역사
숌버그흑인문화연구센터(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홈페이지에서는 오늘날 흑인 사회를 형성한 기초가 된 13번의 흑인 이주 역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http://www.inmotionaame.org/home.cfm

미국 사회로의 동화: 중국 이민 사회
투쟁과 승리, 전진과 후퇴, 차별과 동화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http://www.pbs.org/becomingamerican/index.html

시카고, 세기의 도시: 이민의 역사
http://www.pbs.org/wgbh/amex/chicago/sfeature/sf_nations.html

목적지 미국
흥미진진한 이민들의 이야기와 미국 이민사, 퀴즈, 자료를 포함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www.pbs.org/destinationamerica/index.html

이민: 의회도서관
의회도서관 소장 자료를 기초로 이민사를 소개한다.
http://memory.loc.gov/learn/features/immig/introduction.html

미국 이민사(1789~1930년)
하바드대학에 소장된 사료를 통해 미국 이민사를 개괄한다.
http://ocp.hul.harvard.edu/immigration/

이민들의 목소리-주요 자료
http://www.digitalhistory.uh.edu/historyonline/ethnic_am.cfm

이민정책연구소 '데이터 허브'
국제 이민에 관한 최신 자료, 통계, 지도를 제공한다.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datahub

새로운 미국 시민
최근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의 문화를 소개한다.
http://www.pbs.org/independentlens/newamericans/index.html

북미 대륙 인구 분포: 이동 및 이민 현황
http://www.ucalgary.ca/applied_history/tutor/migrations/Fhome.html

미 인구센서스 자료 검색서비스
버지니아대학 도서관 데이터를 기초로 제작된 이 툴을 이용하면 각 주의 인구를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다.
http://fisher.lib.virginia.edu/census

온라인 참고자료

미국 이민자 현황 보고서
http://mumford.albany.edu/census/NewComersReport/Americas%20Newcomers.pdf

이민연구센터(CIS) 발간 '미국 이민 현황' 배경자료
http://www.cis.org/articles/2007/back1007.pdf

미국 내 국외 출생 인구
http://www.census.gov/prod/2004pubs/p20-551.pdf

미국 내 이민 및 흑인 인구
http://www.prb.org/pdf07/62.4immigration.pdf

이민에 관한 논쟁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1204/ijse/barone.htm

교수의 가설에 따르면 '다양성=생산성'
http://www.nytimes.com/2008/01/08/science/08conv.html?_r=1&ref=science&oref=slogin

변모하는 면면: 21세기 이민과 다양성 (제임스 M 린제이, 오드리 싱어 공저)
http://brookings.edu/views/papers/lindsay/20030601.htm

'다수로부터 하나로: 미국 이민의 패턴 및 민족 구성'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0699/ijse/portrait.htm

'변모하는 미국의 얼굴' (오드리 싱어 저)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1204/ijse/singer.htm

'이민에 관한 미국 내 논쟁' (대프네 스페인)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0699/ijse/spain.htm

필모그래피

아발론(1990년)
http://www.imdb.com/title/tt0099073/
감독: 배리 레빈슨
상영시간: 126분
시놉시스: 약속된 땅 미국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폴란드계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

크래쉬(2005년)
http://www.imdb.com/title/tt0375679/
감독: 폴 해기스
상영시간: 113분
시놉시스: 각기 다른 민족적 배경과 출신을 가진 등장인물들의 삶이 LA를 배경으로 이틀 동안 서로 얽히고 충돌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

갱스 오브 뉴욕(2002년)
http://www.imdb.com/title/tt0217505/
감독: 마틴 스콜세지
상영시간: 167분
시놉시스: 토착 주민들이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극심하게 대립하던 1863년 뉴욕 파이브 포인츠를 배경으로 아버지의 살인범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암스테르담 밸런의 비극적 종말을 그린 영화

대부II (1974년)
http://www.imdb.com/title/tt0071562/
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상영시간: 200분
시놉시스: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20세기 초반의 이탈리아와 뉴욕을 배경으로 젊은 시절의 비토 콜레오네를 완벽하게 연기한 영화

조이럭 클럽(1993년)
http://www.imdb.com/title/tt0107282/
감독: 웨인 왕
상영시간: 139분
시놉시스: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4명의 아시아 이민 여성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딸들이 서로 의지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

맘보 킹(1992년)
http://www.imdb.com/title/tt0104802/
감독: 안 글림처
상영시간: 104분
시놉시스: 라틴음악 스타로 성공하기 위해 1950년대 미국으로 건너온 쿠바 출신 음악가 씨저와 네스터 형제의 이야기

미시시피 마살라(1992년)
http://www.imdb.com/title/tt0102456/
감독: 미라 네이어
상영시간: 118분
시놉시스: 독재자 이디 아민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간다에서 추방되어 가족이 미시시피로 이주한 뒤 흑인 남성과 사랑에 빠진 어느 인도 여성의 이야기

나의 그리스식 웨딩(2002년)
http://www.imdb.com/title/tt0259446/
감독: 조엘 즈윅
상영시간: 95분
시놉시스: 그리스인이 아닌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가족의 승낙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뿌리와 문화 정체성을 점차 깨달아가는 어느 젊은 그리스 이민 여주인공의 이야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년)
http://www.imdb.com/title/tt0120815/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상영시간: 170분
시놉시스: 2차 세계대전 당시 다양한 인종, 경제적 지위, 지역적 배경을 가진 미군 병사들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을 그린 전쟁영화

미 국무부는 위에 소개된 자료의 내용이나 제공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인터넷 주소들은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터

10, Namyoung-dong
Yongsan-gu
Seoul 140-160
Phone: (02) 397-4662
Fax: (02) 795-3606
E-mail: ircseoul@state.gov
Website: http://seoul.usembassy.gov